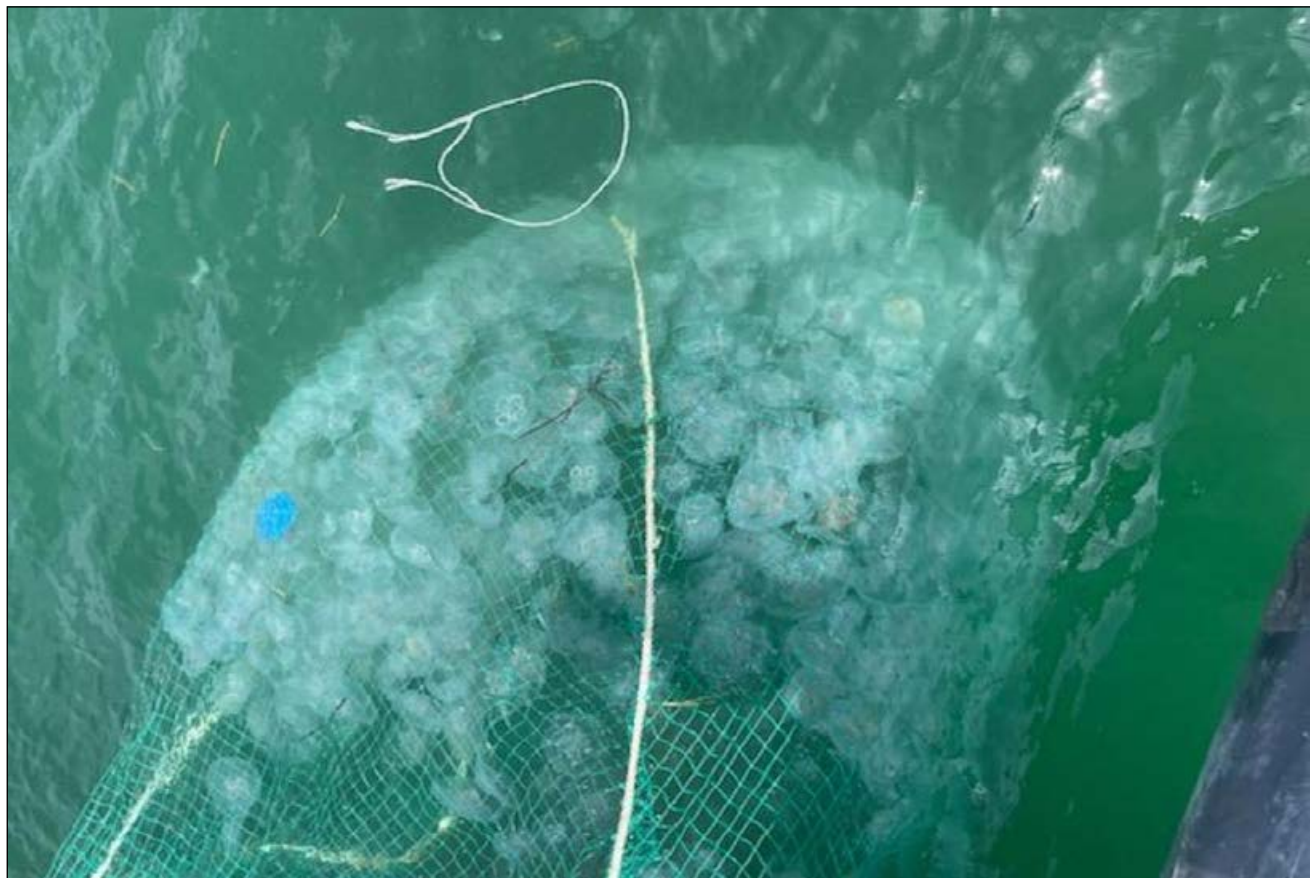


고흥군, 득량만 보름달물해파리 구제작업 본격 추진

어선 55척 투입... 어업 피해와 해수욕객 안전사고 예방 총력



보름달물해파리 구제작업 사진

/고흥군 제공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득량만 일대 표층에서 보름달물해파리가 산발적으로 피를 이루며 대량 출현함에 따라, 오는 8월 3일부터 해파리 구제작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구제작업에는 총사업비 1억 2천여만 원을 투입해 어선 55척을 동원한다. 이는 해파리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어업 피해와 해수욕객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추진된다. 고흥군은 지난 6월 22일 국립수산물관리원이 전남 남해 앞바다에 해파리 예비주의보를 발령한 이후, 관내 어업인 가운데 해파리 절단기와 인망을 보유한 어선 55척과 정화선 1척으로 구제선단을 구성하는 등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해 왔다. 보름달물해파리는 득량만 해역에서 국지적으로 대량 발생하는 유해생물로, 어획물과 함께 흔해대 수산물의 상품 가치를 떨어뜨리고 어구를 손상시키는 등 어업인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이유빈 기자

보성, 폭염 대응 '취약계층 보호 및 복지시설 안전 점검'

보성군은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 등 재난에 대비해 취약계층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취약계층 보호 대책 수립 및 복지시설 안전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로 폭염 일수가 증가하고 올해부터 폭염 특보 체계가 폭염주의보, 경보, 폭염중대경보를 포함한 3단계로 개편됨에 따라, 군은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특히 폭염중대경보 발령 시 매일 2회 안부를 확인하고, 읍면복지인적안정망 및 희망드림협의체 위원을 활용하여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폭염 구호물품 전달 및 폭염 행동요령등을 안내한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7개소 대상으로 △냉방 설비 정상 작동 여부, △시설 안전·위생관리 상태, △폭염특보 발령 시 단계별 비상 대응체계, △온열질환 예방수칙 안내·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다.

/김윤성 기자

해남군, 노인일자리 사업 폭염 대응 안전관리 강화

해남군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어르신들의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현재 해남군 노인일자리사업은 3,056명의 어르신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45%인 1,384명이 실외활동을 하고 있어 폭염에 따른 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한 상황이다. 이에따라 군은 폭염시 활동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혹서기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폭염이 본격화되면서 활동 시작 시간을 탄력적으로 앞당기고, 폭염이 심화될 경우에는 최대 15시간까지 활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실외활동을 중단하고 실내 안전교육이나 문화활동 등으로 대체해 운영하고 있다.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쿨 토시와 모자, 생수 등 폭염 대응 물품을 지급하고, 활동시간 중에는 충분한 휴식시간을 확보하는 등 건강 보호에도 힘쓰고 있다.

/박종욱 기자

진도교육지원청, 학교급식관계자 연수 실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진도교육지원청(교육장 하숙자)은 7월 31일(금), 관내 유·초·중·고 조리실무사 및 학교급식 납품업체 관계자 40여명을 대상으로 '2026. 학교급식관계자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는 학교급식 현장에서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애쓰는 관계자들이 함께 위생·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고 소통하며, 보다 신뢰받는 학교급식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 방안, 친절 및 소통교육'을 주제로 다년간의 현장 경험을 쌓은 영양교사가 강의를 진행했다. 식재료 및 개인 위생관리, 조리과정 등을 함께 확인하며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실천해야 할 기본 원칙을 다시 강조해 보는 교육이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현장 중심의 사례를 공유하며 안전하고 신뢰받는 학교급식 운영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이가영 기자

장흥 물축제, K컬처 더해 성공 마무리

제19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가 9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44만8천여명의 관광객이 찾은 가운데 2일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올해 축제는 물놀이 체험을 넘어 치유·문화·K-컬처를 결합한 콘텐츠로 호평받으며 대한민국 대표 여름축제로서의 위상을 높였다.

'살수대접 거리퍼레이드'를 시작으로 지상 최대 물싸움, 황금물고기잡기, 수상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MyK FESTA'와 연계한 K-POP 콘서트, 장흥 Rock 페스티벌 등은 젊은층과 외국인 관광객 참여 확대에 기여했다. 빠빠용Zip을 활용한 K-드라마 콘텐츠와 AR 미션투어, 체류형 프로그램은 가족과 청년층에게 새로운 관광 경험을 제공했다.

/김정근 기자

완도군, 8월 추천 관광지 힐링 명소 '해양치유센터'

완도 해양자원 활용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 체험하며 힐링하세요!

완도군 8월 추천 관광지

완도해양치유센터

참여 대상	참여 방법	혜택
전 국민 누구나 (완도군민 제외)	추천 관광지 여행 후 완도문화관광 홈페이지 후기 남기기	매월 추첨을 통해 10명에게 완도 전복 택배 발송 (개별 통보)

완도해양치유센터 포스터

/완도군 홍보팀 제공

완도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8월 추천 관광지로 '완도 해양치유센터'를 선정하고, 관광객 유치와 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완도 해양치유센터는 해수와 해조류, 마드 등 완도의 해양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힐링 명소다.

특히 딸라스 풀을 비롯해 해수 미스트, 마드 테라피 등 16개의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시원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특별한 휴식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다.

프로그램 소개 및 예약 방법은 완도해양치유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은 8월 추천 관광지인 해양치유센터 방문객을 대상으로 여행 후기 이벤트도 진행한다.

해양치유센터를 방문한 뒤 완도문화관광 누리집에 후기를 작성하면 추첨을 통해 완도 특산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무더운 여름, 몸과 마음을 함께 치유할 수 있는 해양치유센터에서 특별한 힐링을 경험하고, 여행 후기 이벤트와 완도 반값여행 등의 혜택도 함께 누리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완도군은 해양치유센터를 비롯한 지역 대표 관광자원을 알리며 여름철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통해 방문객들에게 차별화된 여행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완도의 청정 해양자원을 활용한 치유관광 활성화로 다시 찾고 싶은 관광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가영 기자

자연으로 가는 길 구례

지리산과 섬진강의 풍요로움을 담은 구례군 로컬마켓

구례군 로컬마켓

<https://smartstore.naver.com/guryeshop>